
북유럽 입양인 문학에 나타난 국외입양 비판론 연구: 마야 리 랑베드의 작품을 중심으로*

박정준 (중앙대학교, 강사)

< 목 차 >

- I. 들어가며
 - 1. 연구의 목적
 - 2. 선행연구 검토
 - 3. 왜 북유럽 입양인 문학에 주목하는가
- II. 랑베드 시의 비판 의식
 - 1. 입양인 대상 인종주의 비판
 - 2. 국외 입양 제도 비판
 - 3. 재생산 정책 비판
- III. 북유럽 입양인 문학의 미래

국문초록

양부모 양육 수기와 차별화된 입양인 창작활동이 20세기 후반부터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입양인 인권운동과 비판적 입양 연구, 미디어 활동을 통해 국외 입양 제도의 폐해를 유색인종 입양인의 시각에서 조명하는 시도가 문학계에서도 나타난다. 분노한 입양인들의 집단발화 형태로 개념시를 쓰는 덴마크 시인 마야 리 랑베드는 국외 입양 제도를 옹호하는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랑베드는 아시아계 여성 겨냥 인종주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변질된 국외 입양 제도의 현주소, 전 지구적 착취의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 A07061743).

일환으로 전략한 재생산 정책을 비판한다.

랑베드를 비롯한 입양인들의 활약에 힘입어 북유럽에서는 긍정적으로만 인식되던 국외 입양 제도의 이면이 차츰 알려지는 등 입양 관련 여론변화와 정책 선회가 나타나고 있다. 국외 입양 급감, 정책변경 과정에서 입양인 의견 청취, 여론변화에 입양인 문학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 랑베드의 작품들은 사회적 의제화를 추동하며 소수자 문학의 정치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마야 리 랑베드, 초국가적 입양, 분노한 입양인들, 비판적 입양학, 북유럽 입양인 문학, 입양 토론

I. 들어가며

1. 연구의 목적

본고는 북유럽 입양인 문학에 나타난 정치적 가능성¹을 구명하자는 시도로 기획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세계 방방곡곡에 이산된 한국 출신 입양인 수가 20만 명에 육박한 현재, 이민자 담론과 대별되는 입양인으로서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는 작가들이 세계 각지에서 활약 중이다. 본고에서는 장구한 한국의 국외 입양사가 남긴 발자취를 더듬는 덴마크 시인 마야 리 랑베드(Maja Lee Langvad)²의 작품에 주목한다.

자신의 삶을 결정할 기회가 박탈된 나이에 한국과는 인종과 언어, 문화가 판이하게 다른 북구에서 살아야 했던 입양인들은 양부모와 닮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정체성 문제를 겪게 된다. 전 지구적 이주가 빈번해지는 오늘날에도 몸에 아로새겨진 '비유럽적 신체'로 인해 다르게 취급받는 입양인들은 시민권과 민족성(덴마크인성)에 관한 편견을 체감한다. 유색인종 입양인들의 불이익이 진

1. 본고에서 말하는 정치적 가능성은 입양인들의 활동으로 인한 입양 정책 및 여론변화처럼 실질적 변화를 뜻한다.

2. 1980년 한국 태생인 랑베드는 세 편의 시집을 출간했다. 데뷔작 『홀거 덴마크인을 찾아라』(2006) 출간 이후 2014년에 『그녀는 화났다: 초국가적 입양에 관한 증언』, 2017년에 『가슴 두근거리는 나날들』(Dage med galopperende hjertebanken)을 연달아 발표했다. 발표한 작품들이 스웨덴어와 한국어, 영어로 번역된 랑베드는 세계작가축제(2010)와 소통과 평화의 플랫폼(2019)에 참여 작가 자격으로 방한했다.

지하게 논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당수 입양인은 자신의 소수자성을 억압하며 살아간다. 반면 입양으로 불거진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몇몇 입양인은 일반적인 입양인 인정투쟁과 사뭇 다르게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다.³ 국외 입양 제도에 비판적인 이들은 작품창작에서부터 학술활동, 인권운동, 언론기고를 통해 긍정적 여론 일색인 입양 논전에 이견을 내놓고 있다. 입양인들이 자신의 삶을 직접 말한다는 데서 입양인 창작 활동은 이전의 입양 담론과 차별성이 있다. 입양인들의 이야기가 더해지며 양부모 양육경험이 주축을 이루던 입양 담론은 다양해진다.⁴ 국외 입양의 역기능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발화의 주체로 힘을 얻은 입양인들은 입양 패러다임 변화를 점차 도모하게 된다.

국외 입양 제도를 바라보는 여론 변화에 입양인 작가들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본고에서는 입양인 문학의 성과를 다방면으로 탐색한다. 국외 입양 관련 여론변화, 입양인들의 고충을 다룬 점, 입양 제도의 대안을 마련해준 점이 입양인 문학에 두루 나타나 있다. 본고에서 다룰 랑베드의 작품들은 최근 미국과 한국,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국외 입양에 관한 비판과 맥이 닿아 있다. 21세기 이후 북유럽에서 국외 입양이 현저히 감소한 배경을 논할 때 입양인 인권운동 및 창작활동 비중을 간과하기 힘들어진 것도 입양인 입지 강화와 연관돼 있다. 랑베드 작품의 주제의식은 문학장을 넘어서 사회 곳곳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북유럽 입양인 문학에 나타난 정치성에 주목하는 연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북

3. 자국에 심각한 인종 문제가 없다고 자부하는 북유럽에서 이견을 내는 입양인들은 사회결속을 저해하는 불평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 리네 명(Lene Myong)은 형행 입양 제도를 비판하거나 유색인종 입양인으로서의 상흔을 전하는 입양인들에 대한 편견이 상존한다고 지적한다. Myong, L., "Adoptionens Tid Er Nu(입양을 말할 시간이 도래했다)," *Information*, 2014.1.6. 불행한 개인사를 국외 입양 제도에 결부시킨다는 고정관념이 다분한 사회에서 입양인 활동가들이나 예술가, 연구자들은 정서 문제가 다분하다고 매도된다. 입양 제도 비판을 예외적 담론으로 치부함으로써 국외 입양 제도 및 덴마크 사회의 정당성을 유지시킨다. Gaonkar, Anna Meera, "Adoption er jo ren menneskehandel(입양은 순전한 인신매매이다)," *Politiken*, 2016.5.8.

4. Sørensen, E., "Korean Adoption Literature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The Journal of Literature and the History of Ideas* 12, 2014, p. 169.

유럽에서조차 미발달된 분야이다. 입양인 행동주의는 입양인 인권운동, 비판적 입양 연구, 입양의 3주체⁵ 간 네트워크 강화, 입양 반대 집회, 한국 미혼모들과의 연대 및 원가족 재회 등에 천착하는데, 이 경향이 문학에 집대성되어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

랑베드의 작품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은데 그의 작품에 나타난 인종주의 비판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⁶ 입양인 문학 연구를 입양인 연구자들이 주도했는데, 이 중 소른슨(Eli Park Sørensen)과 라스무슨(Kim Su Rasmussen)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입양인 작가들을 ‘동화 단계’와 ‘양가적 단계’, ‘행동주의 단계’로 분류하며 어떠한 단계에 속하는지에 따라 국외 입양 제도나 출생국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상당하다고 지적한다. 백인의 눈으로 한국사회를 관찰하는 동화 단계에 속한 입양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북유럽에서 입양인들이 북유럽 정체성 강화 양상이 나타난다.⁷

여러 북유럽 작가의 작품을 백인성이라는 공동주제로 비교한 이베네스(Sabina Ivenäs)의 연구에서는 유색인종 입양인들이 네 단계를 거쳐 인종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분석한다. 입양아는 입양된 직후 공항에서 백인 양부모의 자식이 되자마자 백인으로 재탄생하며, 백인 양부모의 자식이기에 자신도 백인이라는 세뇌를 받으며 성장하고, 사춘기 시절 백인성(whiteness)을 과도하게 형성해서 ‘백인보다 더욱 백인스러운’ 존재가 되며,⁸ 마침내 백인의 눈으로 자신과 타자를 인식한다고 진단한다.⁹ 이 연구에서는 일부 입양인이 정체성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면모를 다룬다.

북유럽 입양인들의 입양 제도 비판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본고에서는 랑베

5. 입양의 3주체는 입양아(인)를 비롯해 양부모와 친부모로 구성된다.

6. 박정준, 「국외입양인들의 작품에 나타난 인종주의 문제」, 『비교문학』 65, 2015, 한국비교문학회, 135~159쪽.

7. Rasmussen, K. & Sørensen, E., “The Temporality of the Late Arrival: Fanon, Trenka, and the Question of Returning,” 『영어영문학연구』 53-2, 2011, pp. 313~314.

8. Eng, D., *The Feeling of Kinship: Queer Liberalism and The Racialization of Intimac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0, p. 177.

9. Ivenäs, S., “White like Me: Whiteness in Scandinavian Transnational Adoption Literature,” *Scandinavian Studies* 89-2, 2017, p. 244.

드 작품의 변별적 특징에 천착하며 이전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입양인 행동주의의 문학적 형상화를 살펴본다.

3. 왜 북유럽 입양인 문학에 주목하는가

본고에서 북유럽 입양인 문학에 나타난 주제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세계 최대의 입양 송출국(sending country)이라는 오명을 지닌 한국의 국외 입양사를 입양인의 관점에서 조명해보는 기회가 된다.

본고에서 북유럽 입양인 문학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동들은 미국과 프랑스 다음으로 북유럽에 대거 입양되었다. 저출생 문제가 빈번하게 회자되던 2011년부터 2018년까지 500명의 한국 아동이 북유럽에 입양됐는데,¹⁰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인 국외 입양 감소세 속에서도 한국과 북유럽 간 입양이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다.¹¹ 한국은 오늘날 중국을 제친 최대 입양 송출국이다.¹² 몇 만 건에 달하는 한국아동의 북유럽 입양은 국외 입양 제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입양 송출국이 빈국으로 이해되는 상황에서 한국어 동들이 국외로 입양되는 현실은 입양 제도의 모순을 드러낸다. “세계에서 13번째로 부유한 한국은 더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외 입양 송출을 허용하는 한국 정부¹³”에 분노한 랑베드는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외 입양 송출을 허용하는 한국 정부¹⁴”를 규탄한다.

10.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스웨덴 281명, 노르웨이 158명, 덴마크 61명 등 500명의 한국아동이 북유럽에 입양됐다.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생모 중 99%가 미혼모이다. 아동권리보장원 (<http://www.ncrc.or.kr>, 2020년 2월 10일 접속)

11.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참조.

12. 21세기 초 중국이 수많은 아동을 전 세계에 입양 보냄으로써 한국이 20세기에 보유하던 세계 최대 입양송출국 지위를 가져갔다. 최근 중국에서 국외 입양 송출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매해 수백 명의 아동을 국외로 입양시키고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4,864명이 국외로 입양됐는데 이 수치는 해당기간에 매해 평균 540여명이 입양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참조.

13. “Hun er vred på den sydkoreanske regering over at tillade transnational adoption i betragtning af, at Sydkorea ikke længere er et uland, men rangerer som den 13. rigeste nation i verden.” Langvad, M.L., *HUNERVRED- Et vidnesbyrdomtransnationaladoption*, København: Forlaget Gladiator, 2014, p. 159.

14. “Hun er vred på den sydkoreanske regering over at tillade transnational adoption i betragtning af, at Sydkorea har en af verdens laveste fødselsrater.” 위의 책, p. 159.

둘째, 국내 입양인 문학 연구가 미국 입양인 작가들에 집중된 만큼 미국 입양인들과는 다른 북유럽 입양인들의 고뇌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북유럽은 한국의 국외 입양사에서 중요한데, 스칸디나비아3국은 주요 입양 수용국(receiving country)으로서 한국아동 입양에 적극적이었다. ‘죽어가는 제3세계 아동’을 부유한 서구 국가가 구출(rescue)한다며 북유럽에서는 1960년대부터 한국 아동들을 널리 입양해왔다.¹⁵ 북유럽에 한국 출신 이민자나 유학생, 주재원을 합친 수보다 많은 한국 입양인이 살게 된 기현상은 양국관계에서 입양의 비중을 보여준다. 북유럽과 한국 간 국외 입양이 활성화된 데는 양국에서 국외 입양 제도가 긍정적으로 인식된 것과 관련 깊다.¹⁶ 그러나 우려할 만큼 높은 입양인들의 자살과 정신질환 비율, 상대적 빈곤 문제가 20세기 후반부터 대두되며 국외 입양의 현주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¹⁷ 또한 저출생이 인구문제 현안인 지경에 한국아동들의 국외 입양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¹⁸

셋째, 북유럽에는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 미술 등 다방면에 입양인 예술가가 분포돼 있다.¹⁹ 이들을 단일 유형으로 분류하지 못할 만큼 다양한바 사실상 한국 태생 입양인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국외 입양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상당하다. 비판적 입양 기조를 유지하는 랑베드는 입양인 문학 장르에서 중심을 차지한다.

15. Yngvesson, B., *Belonging in an Adopted World: Race, Identity, and Transnational Adop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p. 30.

16. HübINETTE, T., “Debatt: Att köpa ett barn: En grym människohandel(토론: 아동 구매 ‘인신매매’)” *Dagens Nyheter*, 2003.8.26.

17. Cederblad, M, et al., “Mental Health in International Adoptees as Teenagers and Young Adults, An Epidemiological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 1999, p. 1229.

18. Kim, E., *Adopted Territory: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0, p. 3.

19. 스웨덴의 아스트리드 트룟찌(Astrid Trotzig)와 소피아 프렌치(Sofia French), 노르웨이의 아네 램(Ane Ramm)이 1990년대에 자전소설을 출간해서 언론과 평단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Ivenäs 244). 노르웨이의 브린윌프 용 션(Brynjulf Jung Tjønn)과 아네 경숙 외프스티(Anne Kyung Sook Øfsti), 가이르 폴레복(Geir Follevåg), 스웨덴의 파트리크 룬드베리(Patrik Lundberg)와 마라 리(Mara Lee), 리사 울림 세블룸(Lisa Wool Rim Sjöblom), 덴마크의 랑베드와 에네 진 카이슨(Jane Jin Kaisen), 이바 친(Eva Tind)이 대표적이지만, 이들 외에도 입양인 예술가가 더 존재한다.

II. 랑배드 시의 비판 의식

1. 입양인 대상 인종주의 비판

북유럽 사회에서 은연중에 금기시되는 인종 문제를 몇몇 입양인은 공론화한다. 인종적 소수자로서 입양국에서의 차별을 알리는 일군의 입양인은 백인 양부모에게 입양되어서 '명예 백인'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로 오인되는 고통을 토로한다.²⁰ 장차 겪을 법한 인종 문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유색인종 아동들을 대규모로 입양해온 관계당국의 안일한 처사를 랑배드는 성토했다. 아래 인용문에서는 유색인종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으나 인종문제에 무관심한 양부모들을 비판한다. 양부모들은 유색인종 자녀의 수난을 우려하기 힘들며 우울해하는 자식을 꾸짖기도 하므로 입양이는 고독하게 고난을 감내한다.²¹

그녀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양부모들에게 화가 난다. 만일 외국 아동을 입양했다면 당신 역시 다문화가정의 일원이 된다. 아이에게만 양부모나 입양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부모 역시 자녀들과 자녀 출생국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

Hun er vred på de adoptivforældre, der ikke betragter deres familie som en multikulturel familie. Når man adopterer et barn fra et andet land, bliver man den del af en multikulturel familie. Det er ikke kun barnet, der må tilpasse sig adoptivforældrene og deres kultur, adoptivforældrene må også tilpasse sig deres barn og dets oprindelige kultur.²²

아래 인용문에는 북유럽 사회에 동화된 입양인이 자신의 인종정체성을 혼동하는 일화가 등장한다. 입양인들이 자신의 인종을 혼동하는 데는 유색인종 아동 입양 이후에도 자신의 가정을 다문화가정으로 인식하지 않는 양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 출생지를 묻는 질문을 받거나 자신의 '비유럽적 신체'가 구별될 때, 입양인들은 자신이 인식하던 인종정체성이 사회 통념과 괴리돼 있다고 깨

20. Gailey, C., W., *Blue-Ribbon Babies and Labors of Lov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2010, p. 48.

21. Eng, D., 앞의 책, p. 177.

22. Langvad, M.L., 앞의 책, p. 204.

닫는다. 입양인들은 자신의 소수자성을 깨달으며 다수자가 되기 위한 인정투쟁에 돌입한다.²³

그녀는 머리색을 염색하거나 파란눈을 갖기를 소망해본 적이 없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시야에서 자신은 이미 백인이었다. 단지 누군가가 그녀에게 어느 나라 출신인지 묻거나, 그녀를 '국(gook)'이라고 욕했을 때야 그녀는 자신이 백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했다. 적어도 타인의 눈에서 그녀는 백인이 아니었다.

Hun har aldrig forsøgt at afbøge sit hår eller haft et ønske om, at hun havde blå øjne. Det behøvede hun ikke at ønske sig. I hendes øjne var hun allerede hvid, Det var kun, når hun blev spurgt om, hvor hun kom fra, eller når hun blev råbt "skævoje" efter, at hun mindet om, at hun ikke var hvid, I hvert fald ikke hvid i andre folks øjne.²⁴

이민 2,3세대가 보통 부모로부터 인종정체성을 습득하는 것과 달리 집안의 유일한 유색인종인 입양인들은 은연중에 양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한동안 자신을 백인으로 인식했던 랑베드는 디아스포라로서의 복합적 정체성을 뒤늦게 형성한다. 백인으로 살았던 시절과 결별하게 된 랑베드가 발표한 일련의 시집은 그의 인종정체성 변화를 보여준다.

랑베드를 비롯한 입양인들이 덴마크 사회에 동화되고자 백인성을 구성해가는 데는 북유럽 사회의 특수성이 작용한다. 민족국가 성격이 두드러진 북유럽에서 광의의 가족으로 상상되는 국민은 역사와 언어, 교육과정, 문화를 공유하며 직간접적으로 엮여있는 혈연공동체, 즉 일가로서의 덴마크(Familien Danmark)로 표상된다.²⁵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구절처럼 덴마크인들은 단일 민족을 체현하는 백인성을 덴마크인성(Danishness)의 핵심으로 이해한다. '자연의 질서' 개념이 우세한 덴마크에서 '법의 질서'로 '가족'이 된 입양인들을 비롯한 이민자들은 주변화될 수 있다.²⁶ 랑베드는 다수자 집단과 동일성이 많은 자신이 이민자로 오인되는 현상을 통해 백인성 확보가 내부자 편입의 요건임

23. Ben-Zion, S., *Constructing Transnational and Transracial Identity Adoption and Belonging in Sweden, Norway, and Denmark*,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4, p. 43.

24. Langvad, M. L., 앞의 책, p. 37.

25. Rytter, M., "The Family of Denmark' and 'the Aliens': Kinship Images in Danish Integration Politics," *Ethnos* 75(3), 2010, p. 304.

26. 위의 글, pp. 310~311.

을 파악한다.

그러나 덴마크인성을 백인성으로 판단하는 덴마크인들은 자신들이 인종차이에 관대하다는 북유럽 예외주의를 신봉한다. 이러한 시각이 지배적인 북유럽에서 인종 문제 비판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훼방꾼들'(killjoys)에게 비난이 쏟아진다. 그는 데뷔작 『홀거 덴마크인을 찾아라』(Find Holger Danske)에서 '진짜 덴마크인'을 편집증적으로 고수하는 극우 세력을 풍자했다. '비유럽적 신체'를 지닌 데다 유럽 밖 태생인 입양인들은 '비(非)덴마크인'으로 취급받기도 한다.²⁷ 한국 입양인들은 백인 양부모가 양육한 점이 강조될 때 내집단이 되기도 하나 인종 정체성이 부각될 때 주변화된다. 자신들을 둘러싼 인식이 불일치되는 상황에서 입양인들은 혼란스러워 한다.²⁸ 덴마크 시민권과 백인 가족, 덴마크에서 수학, 덴마크어 구사력을 갖춘 랑베드는 다수자 집단과 '거의 똑같은' 유색인종으로서 다른 이민자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놓인다.²⁹ 하지만 입양인들이 여타 유색인종 이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대우를 받는 현상은 인종주의를 방증하므로 이를 반기는 행위는 자가당착을 초래한다. 입양인들을 비롯한 몇몇 유색인종만을 선별적으로 내집단에 편입시키는 처사를 랑베드는 비판적으로 응시한다.

아래 인용문에서 랑베드는 입양에 아로새겨진 인종주의를 고발하고자 국외 입양이 한창이던 1979년 덴마크 입양 기관에서 발행한 입양 안내서 문구를 인용한다. 한국아동들은 상대적으로 흰 피부에 장신인 게 강조된 반면 인도와 파키스탄 아동들은 검은 피부와 단신인 게 부각된다. 이 묘사는 백인들과 동일성이 있는 유색인종 아동일수록 수요가 높다는 점을 시사하며 인종에 구애 없이 입양하겠다는 명분을 무색케 한다.³⁰ 국외 입양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하겠다는 의지가 입양 과정에서 준수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27. Koo, Y., "We Deserve to Be Here': The Development of Adoption Critiques by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in Denmark," *Anthropology Matters* 19(1), 2019, p. 43.

28. Jerng, M. C., *Claiming Others: Transracial Adoption and National Belonging*.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p. 182.

29. Koo, Y., 앞의 글, p. 44.

30. Gailey, C. W., 앞의 책, p. 38.

한국 아동들은 밝은 피부색에 검정색 머리와 검은 아몬드 모양 눈을 지닌다. 한국인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장신이기에 한국 아동들도 덴마크 아동들에 비해 특별히 작지 않다. (중략) 인도 아동들은 피부색이 보통 매우 검은데 검정색 머리와 검은 눈을 지녔으며 덴마크 아동들보다 오래 작다. 남아시아 출신 아동들이 가장 검은 편이다. (중략) 칠레 아동들은 남유럽 아동들처럼 생겼다. 입양센터에서는 선주민 아동들이 극소수일 것이라 충고하고 싶다.

Koreanske børn er lyshudede og har sort hår og sorte, mandelformede øjne. Koreanerne er et af de højeste asiatiske folk, og børnene er derfor ikke specielt små i forhold til danske børn. Indiske børn er i almindelighed meget mørkhudede med sort hår sort hår og sorte øjne, og de er generelt mindre end danske børn. I almindelighed er børnene fra Sydindien de mørkeste. Børnene fra Chile ligner børn i Sydeuropa, og Adoption Center har fået oplyst, at der vil være meget få børn med indiansk præg.³¹

상당수 입양인이 백인과의 접점을 강조하며 다수자화(majorization)를 좇는 분위기에서 랑베드는 자신만의 독자노선을 간다.³² 독자들의 기대지평을 충족시켜주기보다 그는 덴마크 사회가 장성한 입양인에게서 듣고 싶지 않을 법한 담론을 개진한다. 데뷔작 출간 이후 발표한 후속작 『그녀는 화났다』(Hun er vred)를 집필하기 위해 그는 입양 연구자와 활동가 등 다양한 신분으로 창작에 임했다. 그는 집필 내내 국외 입양 관련 문헌을 읽거나 다양한 입양인과 인터뷰하며 시를 완성했다. 입양인의 개인사에 호기심을 일으키는 문학장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데 천착한다.³³ 입양인 집단발화 성격을 띤 『그녀는 화났다』는 ‘입양인들은 화났다’는 의미로 확장됨으로써 덴마크 사회가 경청해야 할 소수자 문학이 된다.

랑베드는 입양인의 고뇌가 상당 부분 인종 문제와 직결돼 있음을 밝힌다. 랑베드는 여성 입양인들이 성을 파는 ‘태국 여자’나 동남아 출신 저임금 노동자로 오인되는 현상이 자존감과 민족정체성 형성을 저해한다고 본다. 아래 인용문에서 시적화자는 태국여자로 취급당한 후 덴마크인으로 보이려는 미드(Mette)가 아시아계 여성을 희롱하는 문화에 맞서기보다 태국여자로 보이지 않

31. Langvad, M. L., *Find Holger Danske*. København: Forlaget Gladiator, 2006, p. 29.

32. Ben-Zion S., 앞의 책, p. 32.

33. Kim, E., 앞의 책, p. 177.

으려는 데만 주의를 기울여 탐탁하지 않다. 하지만 덴마크인으로 보이려는 여성입양인이 미드만이 아님을 고백하는 랑베드의 비판대상은 자신도 겨냥한다.

그녀는 화났다. 미드를 사는 데 시간당 얼마가 드는지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미드가 길을 걸어갈 때 모르는 남자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면 얼마가 드는지 물었어요. 그 날부터 미드는 자신의 옷차림에 부쩍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태국에서 왔다고 여기지 않길 바라대요.

그녀는 태국 여자들에 대한 덴마크 내 인식에 화났다.

그녀는 덴마크에서 태국 여자로 보이지 않으려는 미드에게 화났다.

그녀는 덴마크에서 태국 여자로 보이지 않으려는 자신에게 화났다.

Hun er vred over, at Mette er blevet spurgt om, hvor meget hun koster i timen. Mette kom gående på gaden, da en fremmed mand stoppede hende for at spørge, hvor meget hun skulle have for at tage med ham hjem. Fra den dag af, fortæller Mette, blev hun mere bevidst om, hvordan hun klæder sig.

Hun vil ikke have, at nogen skal tro, hun er fra Thailand, siger hun.

Hun er vred over den forestilling, mange gør sig om thailandske kvinder i Danmark.

Hun er vred på Mette over at være bange for at blive set på som en thailandsk kvinde i Danmark.

Hun er vred på sig selv over at være bange for at blive set på som en thailandsk kvinde i Danmark.³⁴

위의 인용문에서 랑베드는 아시아계 여성들의 일상적 인종주의 피해를 다룬다. 덴마크에서는 입양인들뿐만 아니라 필리핀 출신 돌봄노동 여성들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시아계 여성들이 고령의 저임금 남성과 위장결혼해서 덴마크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성을 파는 ‘태국여자’라고 의심하기도 한다. 랑베드는 여성입양인들의 성희롱 피해와 열악한 사회·경제적 계급으로 취급받는 문제를 거론한다.

랑베드의 작품들은 입양인들이 차별받을 리 만무하다는 사회적 믿음에 균열을 생기게 했다. 그는 입양을 개인사로 축소하기를 거부하며 국외 입양 제도를 중요 현안으로 격상시킨다. 그는 유색인종 입양인들이 종종 이민자로 취급받는 현실을 조명하며 인종문제를 폭로했다.

34. Langvad, M.L., 앞의 책, p. 105.

2. 국외 입양 제도 비판

이 장에서는 입양인 언술행위에 담긴 의미 규명을 위해 북유럽의 입양 논전을 살펴본 후, 이러한 고민이 반영된 랑베드의 작품을 분석한다. 북유럽에서 조차 장성한 입양인에 대한 관심이 미약해서 주로 아동과 양부모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다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성인 입양인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후 북유럽의 입양 논의는 성인 입양인들을 배제하고는 성립할 수 없게 되었다.³⁵

2002년에 미디어가 촉발한 스웨덴의 국외입양 논쟁에서는 입양인 간 이견이 여지없이 드러났다.³⁶ 공영방송 토론 프로그램과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전개된 입양 논쟁은 국외 입양이 참여한 사안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한동안 지속되었다. 일련의 토론은 국외 입양 찬반으로 양분되었는데,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입양인들은 대체로 비입양인들과 유사한 시각에서 국외 입양 및 인종주의 문제를 바라보았다. 생애 대부분을 스웨덴에서 보낸 입양인들의 출생국 애착이 부자연스럽다며, '고향'에서 원가족과 재회하면 입양으로 불거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입양인들을 조소했다. 더불어 일각에서 제기된 북유럽인들의 인종주의 혐의는 과민한 세력의 불평불만이며, 스웨덴 예외주의의 시각이 편재한 인종 색맹('극소수를 제외하면 스웨덴에 인종주의자가 없다.')을 옹호했다.³⁷ 당시 몇몇 입양인의 문제제기가 지탄받는 등 토론회에서 노정된 반목은 국외 입양 제도에 대한 입양인 간의 합치점 부재를 보여주었다. 소설가 트룟찌를 비롯해서 언론인 리프벤달(Tove Lifvendahl)과 순드스트림(Lena Sundström) 등 지명도 있는 한국 입양인들은 일면 양부모의 관점에서 국외 입양을 옹호하며 양부모가 지탄받는 데 분개했다.³⁸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을 뿐 엄연한 스웨덴인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입양 연구자 휘비네트(Tobias Hübinette)를 비롯한 소수의 입양인은 유색인종 입양인으로서 체험에 기반한

35. Koo, Y., 앞의 글, p. 37.

36. Nam, D., "Adoption, rasism, skuld och ansvar(입양, 인종주의, 죄책감 그리고 책임감)," *Bang* 1, 2015.

37. Nam, D., 위의 글.

38. Adopsjonsforum, "Intervju med Astrid Trotzig(아스트리드 트룟찌와의 인터뷰)," *Adopsjonsforum*, 2015.4.5.

증언을 하며 국외 입양이 아동복지의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휘비네트는 입양인들의 취약한 정신건강 상태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이제라도 입양의 현주소를 직시하기를 촉구했다.³⁹

스웨덴 입양 논쟁은 공중파에서 펼쳐지다가 유력 일간지로 확대된다. 입양인이 입양 제도 관련 의견을 일간지에 게재하면, 이에 동조 혹은 반박하는 다른 입양인들의 글이 연달아 게재되었다. 상대적으로 감정전이 약화된 일간지 논쟁은 유의미한 성격이 있었으나 결국 상호비방과 불화를 일으키며 입양인간의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스웨덴 입양 논쟁은 비입양인들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입양인들에게도 충격을 안겨주었다.⁴⁰ 입양인들끼리 격렬한 논쟁을 벌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10년 가까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최근 스웨덴 입양 논쟁의 '제2의 물결'이 도래했다.⁴¹ 미국이나 덴마크, 한국 등지에서 입양인 운동이 본격 출범하자 스웨덴 입양인들도 활동을 재개했다. 21세기에는 한결 안정된 분위기에서 입양 문제가 논의되는데, 입양 제도에 비판적인 입양인들의 글이 언론에 발표되고 있다. 단엘 남(Danjel Nam)과 파트릭 룬드베리, 리사 올림 세블롬을 비롯한 입양인들이 국외 입양 제도를 비판하는데는 일찍이 미국과 한국에서 나타난 입양인 행동주의 영향이 지대하다. 최대한 많은 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내기 위해 정체성을 위조하는 것에서부터, 상당수가 입양될 당시 고아가 아니었음에도 고아로 둔갑된 문제, 나아가 모성권을 침해당한 생모들의 사정을 제인 정 트렌카(Jane Jeong Trenka)를 비롯한 몇몇 입양인이 조명했다.⁴²

덴마크에서도 21세기 초반부터 연구자들과 예술가, 활동가 주도의 입양인 운동이 활발해진다. 입양인 자조모임에서 출범한 네트워킹이 발전해 국외 입

39. Hübnette, Tobias, "Debatt: Att köpa ett barn: En grym människohandel(토론: 아동 구매 '인신매매')." *Dagens Nyheter*, 2003.8.26.

40. Nam, D., 앞의 글.

41. Hellquist, A., "Ju fler vi blir desto modigare blir vi(우리가 알아갈수록 더욱 용기가 생길 거야)", *ETC*, 2016.6.4.

42. Trenka, J.J., *Fugitive Visions: An Adoptee's Return to Korea*, Minnesota: Graywolf Press, 2009 참조.

양 관련 논문과 소설, 시 등을 발표하는 장을 형성했다. 랑베드 역시 비판적 입양 연대모임인 입양정책포럼(Adoptionspolitisk Forum)에서 수차례 시를 낭독했다. 입양 논전이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2010년 이후 활발해진 것은 입양 제도를 자유롭게 비판하지 못했던 금기를 깬 입양인들의 용기이자, 국외 입양 관련 여론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뜻한다.

입양인 운동이 덴마크에서 정착한 데는 한국 방문 유행과 입양인 간 교류 활성화, 입양 서사들도 영향을 끼쳤다. ‘뿌리 찾기’를 다룬 자전소설들은 일정한 경향성을 띠는데, 양부모와의 갈등이나 정체성 혼란, 원가족에 대한 궁금증으로 심란해하던 입양인이 한국에 방문해 우여곡절을 겪다가 자신이 북유럽인임을 자각하는 서사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북유럽이 한국보다 살기 낫다는 관점에서 입양의 순기능이 부각된다.⁴³

입양되자마자 출생국과 절연하게 되었다며 출생국에서 원가족과 재회하려는 입양인들을 냉소적으로 보는 세태를 우려하는 랑베드는 출생국 방문의 의미가 단순히 성공과 실패로 규정될 수 없기에 설혹 한국 방문 중 실망했더라도 무의미하지 않다고 본다.⁴⁴ 단절된 관계 복원에 시간이 걸린다고 조언하는 랑베드는 입양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덴마크에서 보낸 시간만으로 형성할 수 없듯 양국과의 관계가 모두 중요하다고 본다.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한국방문 이후 한국을 재차 찾지 않겠다는 입양인들의 이야기가 각광받는 북유럽에서 그는 한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고정관념을 비껴간다.

그는 한국에 3년간 체재할 때 입양인 활동가들과 조우하며 입양 제도 및 입양인으로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바꾸었다고 술회한다. 랑베드는 비판적 입양 운동이 ‘기독교도가 신앙심을 잃거나 마르크시스트가 공산주의 신념을 상실한 것과 진배없다’는 미국 입양인 앤드류 머피(Andrew Murphy)의 말을 인용한다.⁴⁵ 더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 랑베드는 새로운 식

43. Rasmussen K. & Sorensen E., 앞의 글, p. 307.

44. Sorensen, E., “Desire and Censorship in Astrid Trotzig’s *Blod ar tjockare än vatten*,” 『세계문학기비연구』 37, 2011, p. 553.

45. Langvad, M.L., 앞의 책, p. 53.

견을 얻으며 확장되었지만 많은 것을 상실하는 이율배반을 겪는다. 그는 국외 입양 제도의 수혜자로 인식했던 이전의 자신과 결별하며 소수인종 여성 정체성을 재구성한다.

오랜 기간 국외 입양 제도를 시행해온 데다 인구비율상 국외 입양 비율이 높은 덴마크에서는 국외 입양을 집단양육 같은 사회적 실험으로 확대해석하는 관행이 있다.⁴⁶ ‘우리’ 덴마크인들이 ‘함께 키워낸’ 입양인들의 장성한 모습을 보며 자축하는 집단심성에 냉소하는 랑베드는 다수자들이 옹호해온 가치를 부정한다. 아래 인용문에서는 국내외 입양 기관들이 변창한 현실을 거론하며 이윤추구 수단으로 변질돼 가는 초국가적 입양 산업을 지탄했다. 인용문에서는 요보호아동을 위한다는 국외 입양이 예비 양부모 대상 산업으로 변질된 병폐를 폭로한다. 아동들이 공산품처럼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입양되는 과정에 고액의 수수료가 오가는 폐해를 지적한다. 민간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와 같은 초국가적 입양 기관이 준정부 역할을 떠맡으며 요보호아동 복지를 책임지는 형국을 랑베드는 비판한다.

그녀는 입양 보내고 입양 받는 나라의 입양기관들이 개인 소유인 게 화났다.

그녀는 입양 보내고 받는 입양기관들이 국제 입양을 통해 이익을 챙겨서 화났다.

그녀는 자신이 수출상품이어서 화났다.

그녀는 자신이 수입상품이어서 화났다.

그녀는 국외 입양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 운영되는 산업이 되어서 화났다. (중략)

그녀는 “아동을 위한 부모 찾기”에서 “부모를 위한 아동 찾기”로 초점이 바뀌어서 화났다.

Hun er vred over, at adoptionsbureauet i såvel afgiver- som modtagerlande er privatejet.

Hun er vred over, at adoptionsbureauet i såvel afgiver- som modtagerlande tjener penge på international adoption.

Hun er vred over at være en eksportvare.

Hun er vred over at være en importvare.

Hun er vred over, at international adoption er blevet en industri drevet af udbud og efterspørgsel. (중략)

Hun er vred over, at det i dag mere er et spørgsmål om ”at finde børn til forældre” end om ”at

46. Ben-Zion, S., 앞의 책, pp. 82~83.

finde forældre til børn”⁴⁷.

오늘날 북유럽에서는 각종 요인으로 인해 국외 입양이 급감하는 추세이다.⁴⁸ 체외 수정을 비롯한 의학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하며 불임치료가 개선되자 입양 수요가 감소했다.⁴⁹ 더불어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수료로 인해 중상류층이 아니면 입양하기 어려워졌다.⁵⁰ 매해 큰 폭으로 입양이 감소하자 덴마크에서 국외 입양이 금명간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점쳐지고 있다.

또한 입양인들의 의견이 차츰 사회에 수용되며 입양인 주도 활동이 여론 및 정책변동의 동력이 되고 있다. 랑베드를 비롯한 입양인들은 빈국 아동을 돕는 게 목적이라면 입양을 선택하기보다 다른 대안을 고려하라고 일축한다. 아동들을 원가족과 떼어놓은 후 고유의 문화, 언어와 단절시킨 뒤 낯선 국가에서 양부모와 살게 하는 것은 슬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임신매매된 후 입양되는 사태가 근절되지 않은 만큼 예비 양부모들은 입양할 아동의 사정을 살피라고 조언한다. 양부모들이 낙관적으로 예단하는 것과 달리 유색인종 입양인에게 고충이 있다고 랑베드는 알렸다. 랑베드를 비롯한 입양인들의 비판이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국외 입양의 이면을 통찰하는 움직임이 생긴 것도 입양 감소 원인이 되고 있다.

3. 재생산 정책 비판

랑베드는 북유럽의 전향적 가족정책에 차별화된 시각을 제시한다. 랑베드는 서구사회 진보와 발전의 부산물을 남반구 약자들이 짊어지는 질곡을 반대한다. 여성운동의 성과로 북유럽 여성들은 임신중단을 비롯한 재생산권을 누리

47. Langvad, M. L., 앞의 책, p. 17.

48. Yngvesson, B., “Transnational Adoption and European Immigration Politics: Producing the National Body in Sweden,”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19(1), 2012, p. 332.

49. Brodegaard, T., “Adoption: ‘Det gør dig ikke til mindre mor’ (입양은 당신을 작은 엄마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ALT*, 2013.10.15.

50. 오늘날 덴마크에서 아동을 입양하려면 158,000크로나(27,389,300원)에서 287,000크로나(49,751,450원)가량이 든다. 2006년에 80,000크로나(13,868,000원)가 필요했던 것을 떠올릴 때 수수료 급등을 보여준다. Hansen, J., “Adoption er blevet langt dyrere de seneste ti år (입양은 지난 10년간 비싸졌다)” *Berlingske*, 2016.12.30.

게 되었고,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복지 혜택에 힘입어 여성들은 자식을 입양 보내지 않게 되었다.⁵¹ 북유럽 여성들의 양육 포기가 급감한 이후 국외 입양이 대중화된다. 이 추세에서 이성애자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중산층 형태가 이상적 가족모델로 인식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자, 무자녀 부부들은 세금 불이익뿐만 아니라 소외감을 호소하게 되었다.⁵² 북유럽에서 무자녀 부부가 불이익을 피할 용도로 국외 입양을 한 점을 도외시할 수 없다.⁵³ 국내 입양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덴마크인들은 타국 여성들의 자녀들을 입양함으로써 가정을 설계하게 되었으나, 양부모의 기쁨 뒤에는 입양 송출국 생모들의 아픔이 있었다. 현행 국외 입양 제도가 서구사회 중산층 권리 실현에 집중하며 전 지구적 착취의 일환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랑베드는 입양 송출국 여성들의 빈곤과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북유럽인들의 혜택을 당연시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아래 인용문에서 랑베드는 별다른 직업 없이도 무상교육으로 세 번째 학위 과정을 시작한 양어머니와 저학력 생부를 대조한다. 유복한 복지국가에서 무자녀 부부를 벗어나 안온하게 살아가는 양부모와 달리, 가난해서 딸을 입양 보냈던 친생부모의 남루한 삶을 대조한 랑베드는 전 지구적 불평등이 국외 입양으로 귀결되는 이치를 보여준다.

그녀는 양어머니가 생부보다 훨씬 더 특혜를 받아서 화났다. 그녀의 생부는 공부하고 싶었으나 연명하기 위해 평생 일해야 했다. 그녀의 양어머니는 최근 두 번째 학위를 마치고 얼마 전 세 번째 학위과정에 돌입했다.

그녀는 양어머니한테 화가 난 자신한테 화났다. 생부가 대학에 갈 수 없었던 것은 양어머니 탓이 아니다.

그녀는 교육받는 것이 사실상 특권이라는 데 화났다.

그녀는 생부가 주말 포함, 하루에 17시간씩 일해서 화났다.

51. Cederblad, M., 앞의 글, p. 1229; Yngvesson B., 앞의 글, p. 27.

52. Dorow, S. K., *Transnational Adoption: A Cultural Economy of Race, Gender, and Kinship*,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6, p. 5.

53. Howell, S., *The Kinning of Foreigners: Transnational Adoption in a Global Perspective*, Oxford: Berghahn Books, 2007, p. 20.

그녀는 친생부모가 연중 닷새 정도만 쉬는 데 화났다.

Hun er vred over, at hendes adoptivmor er langt mere privilegeret end hendes biologiske forældre. Hendes far ville gerne have taget en uddannelse, men har været nødt til at arbejde hele sit liv for at tjene penge. Hendes adoptivmor har for nylig afsluttet sin anden uddannelse og er nu gået i gang med sin tredje.

Hun er vred på sig selv over, at hun retter sin vrede mod sin adoptivmor. Det er ikke hendes adoptivmors skyld, at hendes far ikke har haft mulighed for at tage en uddannelse.

Hun er vred på sig selv over overhovedet at sammenligne sin adoptivmor med sine biologiske forældre.

Hun er vred over, at hendes biologiske forældre arbejder omkring 17 timer hver dag inklusiv lørdag og søndag.

Hun er vred over, at hendes biologiske forældre kun har omkring fem fridage på et år.⁵⁴

랑베드는 입양강국 덴마크에서 국외 입양이 칭송되고 있으나 문제 해결 움직임이 미약하다고 지적한다. 남반구와의 연대를 위한 국외 입양, 반인종주의 실현을 위한 유색인종 아동 입양, 남아선호사상 탓에 버려진 여아 입양 등을 1970년대 진보 진영에서 주도했지만, 나날이 양부모 이익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입양아와 원가족이 소외되는 형국을 그는 비판한다.⁵⁵

입양인의 시각에서 랑베드는 성소수자 입양에 관한 심정을 밝힌다. 덴마크에서는 2010년부터 성소수자들도 아동을 입양할 수 있다.⁵⁶ 1988년부터 시작된 의회 논의를 지켜보던 랑베드가 동성애자 입양 허용에 거리를 두는 까닭은 제반 논의가 입양 수용국(덴마크)과 예비 양부모의 관점에서 전개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성애자 입양 논쟁에서 국외 입양 제도의 정당성이나 입양될 아동에 대한 고민이 적절하게 담기지 않았다. 일련의 논쟁에서는 국외 입양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조에서 입양아들을 행운아로 단정 짓는 관행이 역력했다.

랑베드가 동성애자 입양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데는 최근 덴마크에서 발생한 입양 관련 사건들의 여파가 반영돼 있다. 불법입양이 의심되는 사례들

54. Langvad, M. L., 앞의 책, pp. 24~25.

55. Dubinsky, K., *Babies without Borders: Adoption and Migration across the America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0, p. 143.

56. Eriksen M.-Iversen K., "Forsker: Sadan fik bøsser adgang til adoption(연구: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입양권을 확보했는가)," *Politiken*, 2014.7.26.

및 위기상황에 처한 입양아 사례가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 입양 제도를 여전히 호의적으로 보는 여론에 랑배드는 환멸을 느낀 것이다.⁵⁷ 랑배드는 진보적 입장을 내건 집단에서조차 국외 입양의 이면에 관심이 태부족한 현실에 분노한다.

그녀는 최근 동성애자 입양권에 대한 덴마크 논쟁에 화났다.

그녀는 심지어 '권리'라는 단어를 쓰는 데 화났다.

그녀는 어느 누구도 친생부모가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숙고하지 않아서 화났다.

그녀는 덴마크의 게이와 레즈비언 동맹이, 입양되는 아동 수가 서구 국가들에서 입양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수와 일치하여 증가하고 있다고 의회정의위원회에 제시해서 화났다.

그녀는 덴마크에서 동성애자는 입양권이 없어서 화났다.

그녀는 덴마크에서 동성애자는 입양권이 있어서 화났다.

Hun er vred over den aktuelle debat i Danmark om, hvorvidt homoseksuelle skal have ret til at adoptere.

Hun er vred over, at man overhovedet bruger ordet ret.

Hun er vred over, at man ikke gør sig nogle overvejelser om, hvorvidt de biologiske forældre har ret til at beholde deres barn.

Hun er vred over, at man ikke gør sig nogen overvejelser om, hvorvidt et barn har ret til at

57. 『자비 자비: 입양 비용』(Mercy Mercy - Adoptionens pris)이 2012년 공중파로 방영되면서 덴마크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 영화는 '에이즈로 죽음이 임박한 가난한 에티오피아 부부'의 자식들을 덴마크 부부가 입양한 뒤 생긴 우여곡절을 조명했다. 영화에서 에티오피아 부부는 입양기관 설명과 달리 급명간 숨질 위중한 상태가 아닌 태대 국외 입양 제도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양부모에게 적응하는 데 딸이 어려워한다는 소식을 접한 친생부모는 다시금 자식들을 에티오피아로 데려오려 하나 절망적 현실에 직면한다. 별다른 준비 없이 양부모가 된 양부모는 원가족과 생이별한 채 낯선 나라에서 살게 된 아동들의 스트레스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했다. 결국 마쇼는 또다시 보호자가 바뀐 채 위탁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다. 이 영화 상영 이후 유사 사례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또 다른 에티오피아 입양아 에이미 스티(Amy Steen)은 10살에 동생과 함께 덴마크에 입양될 때 입양기관으로부터 생모와의 지속적 연락을 보장받았지만 생모와 곧 연락이 끊긴다. 양부모와 불화를 겪던 그는 양부모집을 벗어나 위탁가정에서 안정을 되찾아갔다. 위탁가정 부부가 에이미 입양을 준비하는 동안 관계 당국에서 갑자기 그녀를 다른 보호시설에 맡기려 했다. 보호시설 입소 과정에서 그녀가 저항하자 경찰까지 출동해서 완력으로 퇴거 조치했다. 이후 다른 에티오피아 입양아 베틀이 홀로 덴마크를 벗어나 출생국에 가서 원가족과 재회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아동이 살기에 아프리카보다 덴마크가 절대적으로 낫다고 여기는 덴마크인들에게 충격이었다. 이 사건은 입양아에게 최적의 성장환경이 어디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Saeitz, D. "Voksne adopterede er godt tilfredse(성인 입양인들은 만족한다)." *Politiken*, 2014.9.26.

vokse op hos sine biologiske forældre.

Hun er vred på Landsforeningen for Bøsser og Lesbiske over i et brev til Folketingets Retsudvalg at opfordre til, at antallet af børn frigivet til adoption stiger i takt med antallet af adoptanter i Vesten.

Hun er vred over, at homoseksuelle i Danmark ikke har ret til at adoptere.

Hun er vred over, at homoseksuelle i Danmark har ret til at adoptere.⁵⁸

위의 인용문에서는 동성애자 입양 논쟁이 입양의 3주체 중 친생부모와 아동을 소외시킨 채 양부모의 관점으로 벌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담겨있다. 자녀를 입양 보내는 친생부모와 원가족과 헤어지는 아동의 슬픔은 외면된다. 랑배드는 국외 입양을 선의로만 해석하는 자세를 탈피하지 못하면 문제해결이 요원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다와 비야케에게 입양권이 있어서 화났다.

그녀는 이다와 비야케가 자신들에게 입양권이 있다고 믿어서 화났다.

그녀는 이다와 비야케가 자신들에게 자녀를 기를 권리가 있다고 믿어서 화났다.

그녀는 이다와 비야케가 자신들의 자식을 낳아줄 인도 여성에게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서 화났다. (중략) 의사인 쑤스나 굽따는 대리모 현상을 '자궁의 자본화'로 명명했다. 굽따가 국외 입양과의 연장선상에서 전 지구적 재생산 산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녀에게 와 닿았다.

그녀는 국외 입양을 비롯한 전 지구적 재생산 산업을 세간에서 '상생'으로 인식해서 화났다. 친생부모가 자식을 입양 보내며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여길지언정, 중국에는 자식을 입양 보낸 부모에게 심각한 상처가 남을 것이기에.

Hun er vred over, at Ida og Bjarke har ret til at adoptere.

Hun er vred på Ida og Bjarke over at mene, at de har ret til at adoptere.

Hun er vred på Ida og Bjarke over at mene, at de har ret til at få børn.

Hun er vred på Ida og Bjarke, fordi de overvejer at betale en kvinde fra indien for at være gravid med deres barn. Hun hørte for nylig adjunkt Jyotsna a. Gupta tale om fertilitetsindustrien i indien,⁹ om hvordan der var sket det, Jyotsna a. Gupta kaldte for "the capitalization of the womb". Det slog hende, da hun hørte Jyotsna a. Gupta fremføre sin kritik af den globale fertilitetsindustri, hvor mange paralleler man kunne drage til transnational adoption.

Hun er vred over, at transnational adoption lige såvel som den globale fertilitetsindustri bliver

58. Langvad, M.L., 앞의 책, pp. 21~22.

betragtet som en win-win situation. Det kan godt være, at de biologiske forældre får løst et problem her og nu, men på sigt har det alvorlige psykologiske konsekvenser for en mor eller en far at afgive sit barn til adoption.⁵⁹

위의 인용문에서 랑베드는 이성애자 커플이 입양권과 부모 될 권리를 확신하는 데 반문한다. 덴마크 중산층은 자금력과 양질의 복지제도를 의지해 부모 자격을 논하지만, 덴마크인들의 가족구성 욕구가 불법 입양과 대리모 양산 같은 폐단을 조장한다고 본다. 랑베드는 국외 입양을 비롯한 대리모 출산을 상생으로 인식하는 관성을 이겨낼 때 바람직한 재생산 토론이 가능해진다고 믿는다.⁶⁰

III. 북유럽 입양인 문학의 미래

현금에 북유럽에서 일군의 입양인은 예술뿐만 아니라 학계, 인권운동, 언론에서 제목소리를 내며 입양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국외 입양을 가능하게 했던 문제가 선결되어야 이산가족 비극을 예방한다는 일군의 입양인은 한국에서 입양 송출보다 미혼모 가구를 비롯한 빈곤가구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¹ 이러한 주제의식이 담긴 랑베드의 작품들은 시기적절한 현장성이 뒷받침된 이주자문학으로 각광받고 있다.

랑베드는 최근 입양인 운동을 부분적으로 대변하며 제도상 병폐가 있는 입양 산업을 고발한다. 그는 제3세계 고아 구제 명목이던 국외 입양이 오늘날 '정상가족'을 욕망하는 중산층 겨냥 산업으로 변질돼가는 실태를 알린다. 더불어 그는 한국 태생 입양인을 비롯한 이주자 차별을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인종주의에 직면한 입양인들의 삶을 집단대화 형태로 전달한다.⁶² 랑베드는 북유럽 개혁세력에서조차 간과하는 재생산 정책의 허점을 비판하며 서구의 정상가족 욕구가 전 지구적 재생산 착취와 결부되었다고 분석한

59. Langvad, M. L., 앞의 책, p. 22.

60. Himmelstrup, A. S., "Anmeldelse(리뷰)," *Litteratursiden*, 2014.6.3.

61. Kim, E., 앞의 책, p. 91.

62. Ben-Zion, S., 앞의 책, p. 81.

다.

입양인 문학에 대한 고정관념을 정면에서 타파하는 랑베드는 차별화된 정체성을 구성해간다. 난민이나 노동이민자, 이민2·3세대 등과는 다른 독보적 정체성을 구축해가는 랑베드는 입양아가 아닌 입양인으로서의 삶을 노래한다. 입양인에게 부과하는 전형적 ‘입양아’ 이미지를 거부하는 랑베드는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를 펼치고 있다. 랑베드를 비롯한 입양인 작가들의 창작 활동의 가시적 성과는 단기간에 보이지 않지만, 국외 입양 제도의 실상을 독자들에게 알리며 유의미한 입양 정책변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에서 국외 입양 급감 추세, 입양 정책 설계 시 입양인 의견 청취, 미디어에서 비판적 입양 운동 언급, 입양인 창작활동의 활성화 등은 입양을 절대선으로 여기던 세간의 고정관념을 해체함으로써 더 나은 재생산 정책을 위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 박정준, 「국외입양인들의 작품에 나타난 인종주의 문제」, 『비교문학』 65, 2015, 한
국비교문학회, 135~159쪽.
- Ben-Zion, Sigalit, *Constructing Transnational and Transracial Identity Adoption and
Belonging in Sweden, Norway, and Denmark*,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4.
- Cederblad, Marianne et al., “Mental Health in International Adoptees as Teenagers
and Young Adults,” An Epidemiological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 1999, pp. 1239~1248.
- Dorow, Sara, K., *Transnational Adoption: A Cultural Economy of Race, Gender, and
Kinship*,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6.
- Dubinsky, Karen, *Babies without Borders: Adoption and Migration across the
America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0.
- Eng, David L., *The Feeling of Kinship: Queer Liberalism and The Racialization of
Intimacy* Durham: Duke U P, 2010.
- Gailey, Christine W., *Blue-Ribbon Babies and Labors of Love*, Austin: U of Texas
Press, 2010.
- Howell, Signe, *The Kinning of Foreigners: Transnational Adoption in a Global
Perspective*, Oxford: Berghahn Books, 2007.
- Ivenäs, Sabina, “White like Me: Whiteness in Scandinavian Transnational Adoption
Literature,” *Scandinavian Studies* 89-2, 2017, pp. 497~514.
- Jerng, Marc. C., *Claiming Others: Transracial Adoption and National Belonging*.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 Kim, Eleana, J., *Adopted Territory: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Durham: Duke U P, 2010.
- Koo, Youngeun, “‘We Deserve to Be Here’: The Development of Adoption
Critiques by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in Denmark,” *Anthropology Matters*
19(1), 2019, pp. 35~71.
- Langvad, Maja Lee, *HUN ER VRED – Et vidnesbyrd om transnational adoption*,

- København: Forlaget Gladiator, 2014.
- _____, *Find Holger Danske*, København: Forlaget Gladiator, 2006. Print.
- Nam, Danjel, "Adoption, rasism, skuld och ansvar(입양, 인종주의, 죄책감 그리고 책임감)," *Bang* 1, 2015.
- Rasmussen, Kim Su & Eli Park Sørensen, "The Temporality of the Late Arrival: Fanon, Trenka, and the Question of Returning," 『영어영문학연구』 53-2, 2011, pp. 301~324, Print.
- Rytter, Mikkel, "The Family of Denmark' and 'the Aliens': Kinship Images in Danish Integration Politics," *Ethnos* 75(3), 2010, pp. 301~322.
- Sorensen, Eli Park, "Desire and Censorship in Astrid Trotzig's *Blod ar tjockare än vatten*," 『세계문학비교연구』 37, 2011, pp. 543~567.
- _____, "Korean Adoption Literature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The Journal of Literature and the History of Ideas* 12, 2014, pp. 155~179.
- Trenka, Jane Jeong, *Fugitive Visions: An Adoptee's Return to Korea*, Minnesota: Graywolf Press, 2009.
- Yngvesson, Barbara, *Belonging in an Adopted World: Race, Identity, and Transnational Adop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 _____, "Transnational Adoption and European Immigration Politics: Producing the National Body in Sweden,"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19(1), 2012, pp. 327~345.
- Adopsjonsforum, "Intervju med Astrid Trotzig," *Adopsjonsforum*, 2015. 4. 5.
- Brødegaard, Tine, "Adoption: "Det gør dig ikke til mindre mor"(입양은 당신을 작은 엄마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ALT*, 2013. 10. 15.
- Enriksen, Mette Høyer & Kasper Iversen, "Forsker: Sådan fik bøsser adgang til adoption(연구: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입양권을 확보했는가)," *Politiken*, 2014. 7. 26.
- Gaonkar, Anna Meera. "Adoption er jo ren menneskehandel(입양은 순전한 인신매매이다)," *Politiken*, 2016. 5. 8.
- Hansen, Jesper Haue, "Adoption er blevet langt dyrere de seneste ti år(입양은 지난 10년간 비싸졌다)," *Berlingske*, 2016. 12. 30.
- Hellquist, Annie, "Ju fler vi blir desto modigare blir vi(우리가 알아갈수록 더욱 용기가 생길 거야)," *ETC*, 2016. 6. 4.
- Himmelstrup, Anne Steen, "Anmeldelse(리뷰)," *Litteratursiden*, 2014. 6. 3.
- Hübinette, Tobias, "Debatt: Att köpa ett barn: En grym människohandel(토론: 아동 구매 '인신매매')," *Dagens Nyheter*, 2003.8.26.

Myong, Lene, "Adoptionens Tid Er Nu(입양을 말할 시간이 도래했다)", *Information*, 2014.1.6.

Saietz, Dorrit, "Voksne adopterede er godt tilfredse(성인 입양인들은 만족한다)," *Politiken*, 2014.9.26.

Kjær, Katrine W., *Mercy Mercy - Adoptionens pris*, 2012.

아동권리보장원, 「2018년 입양 통계」, (아동권리보장원, 2020년 2월 10일 접속)

Abstract

Arguments For and Against Transnational Adoption in Nordic Adoptee Literature: Focusing on Works by Maja Lee Langvad

Park, Jeongjun (Chungang University, Instructor)

Adoptee literatures have been published since the late 1990s in Scandinavia. Adoptee memoirs are different from previous adoption discourses led mainly by adoptive parents and non-adoptee writers. A small number of adoptees put great emphasis on adoptee rights movement, critical adoption studies as well as media activities to disseminate a more balanced understanding of transnational adoption at the present. When it comes to literature, several Nordic adoptees have been writing on their lives as non-Caucasian citizens living in Scandinavia. They try to reveal hidden aspects of life as adoptees, focusing their attention on everyday racism, and searching for identity, loss, and ambivalent feelings towards their birth parents and South Korea.

This paper centres on conception poems written by a Danish poet named Maja Lee Langvad who writes about the transnational adoption system from an angry adoptee perspective. The pain of Korean adoptees is due to three factors: everyday racism, problematic adoption policy, and the negative effects of the adoption system in Denmark. Her poems speak for a great number of adoptees. Her poems say differently about current transnational adoption, trying to change public opinion on adoption, and subsequently encouraging better adoption politics and better reproduction policy in both South Korea and Denmark.

Keywords: Maja Lee Langvad, transnational adoption, angry adoptees, critical adoption study, Nordic adoption literature, adoption discussion

논문 투고일 : 2020년 3월 19일
심사 완료일 : 2020년 4월 16일
게재 확정일 : 2020년 4월 19일